

## 일본 대지진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 필 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choi@kiep.go.kr, Tel: 3460-1022)

노 수 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이 재 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3460-1134)

박 민 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mspark@kiep.go.kr, Tel: 3460-1145)

1. 일본 대지진의 산업 피해 개요
2.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현황
3. 동아시아 각국의 영향 및 대응
4.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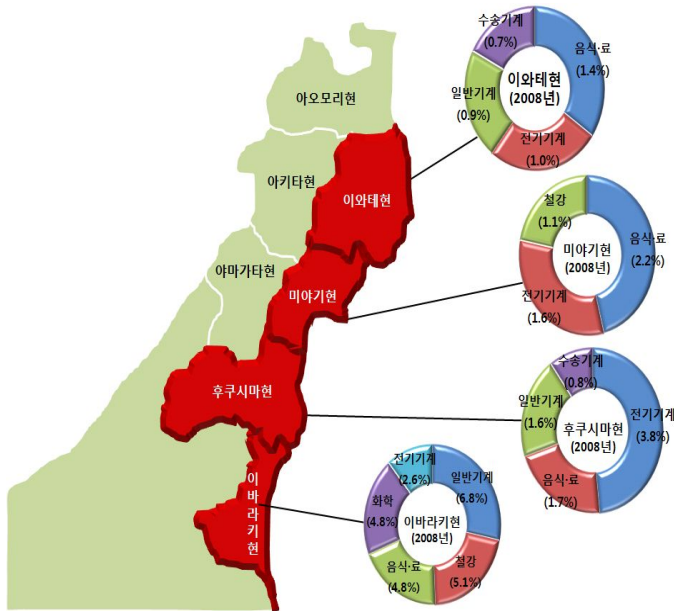
- ▶ 이번 대지진의 산업피해는 직접 타격을 입은 지역은 물론, 전력난과 물류난을 타고 일본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직접 피해지역의 일본 GDP 비중은 6.2%이나 일반기계나 전기기계 등의 품목에서는 10%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냄.
- ▶ 일본 부품소재의 공급 차질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제조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 부품소재 의존도는 대만 29.0%, 한국 25.2%, ASEAN 4개국 21.6%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 지역 생산 네트워크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됨.
  - 대체불가능한 부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 양등과 공급 차질이 예상되며, 대체가능한 부품의 경우 한국과 대만제의 수요 급증이 예상됨.
- ▶ 특히 ASEAN 4개국의 대일본 수출비중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일본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면 동반침체에 들어 갈 가능성이 있음.
- ▶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일본계 회사를 중심으로 조업 차질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 지진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산업별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있음.
  - 전자산업 비중이 크고 대일본 의존도도 높은 대만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 수입관세 인하, 국내시장 우선 공급 등의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
- ▶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수요 부문에서 ASEAN 4개국의 대일본 수출저하가 지역적인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음.
  - 공급부문에서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원가압력 및 공산품 가격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한국 부품소재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1. 일본 대지진의 산업 피해 개요

■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 및 해일은 동북 및 관동 일부 지역의 자동차, 전자, 철강 등 다수 업체의 조업중단을 초래했으며, 이는 일본 전역에서 주요 산업의 조업중단으로 확산됨.<sup>1)</sup>

- 피해가 집중되었던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이상 동북지역) 및 이바라키현(관동지역)의 일본 내 지역총생산 규모는 6.2%임.
-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업종은 일본 내에서 적지 않은 생산 비중(10% 내외)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음식료 10.1%, 일반기계 9.9%, 전기기계 9.1%, 철강 7.5%, 화학 7.2%임.
- 주요 업종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아이신 정밀기계(이와테현), 닛산(후쿠시마), 전자 부문의 소니 및 니콘(미야기현), 히타치(이바라키현), 철강 부문의 신일본제철(이와테) 등 다수의 공장이 파손 및 화재로 인해 조업을 중단함.

그림 1. 집중피해 지역의 주요 산업 현황



자료: 經濟産業省(2011), 『我が国の工業—変化を続ける製造業』.

- 직접 피해지역의 조업중단은 물류 마비 및 전기제한 공급 등의 요인과 맞물려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침.

1) 일본의 자세한 피해상황과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는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1. 3. 30)을 참고할 것.

- 도요타와 혼다 등 주요 자동차 업체는 일본 내 모든 공장의 조업중단을 발표했으며, 도시바 등의 전자업체들도 전력부족으로 인한 조업차질을 겪고 있음.
- 이 밖에 코스모 등의 정유업체와 신일철 등 철강업체들도 조업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함.

표 1. 지진 피해를 입은 주요 부품소재 공장

기업	생산품목	주요 공급처	
			공장·자회사명
자동차	Hitachi Automotive Systems	엔진 제어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	자동차 메이커
	사와 사업소 후쿠시마 사업소	조업 중단 중	
	Hitachi Vehicle Energy	리튬 이온 전지	미(美) GM이 2011년에 발매예정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본사 공장	조업 중단 중. 건물과 생산장치 점검 중으로, 재개 전망 불투명	
	Keihin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장(電装)부품	혼다
	가쿠다 공장	피해지에 있는 거래처 공장으로부터 금형을 인양하여 다른 공장에 생산의뢰 검토 중	
	Renesas Electronics	첨단 시스템 LSI	자동차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휴대전화기
	나가 공장 츠루오카 공장 등 6공장	해외 파운드리(foundry)에 위탁량과 위탁처 기업수를 증가시킬지 검토 중	
	Alpine	자동차내비게이션	일본 메이커와 독일 고급차 메이커
	본사 공장	납기에 대해 메이커와 교섭 중	
현대전자·PC	Clarion	자동차내비게이션	닛산 자동차와 미 Ford Motor
	고오리아마 공장	부품조달과 물류망, 하여 재개시기 미정	전력회복 전망이 불투명
	도시바 모바일 디스플레이	중소형 액정 패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후카야 공장	세계 점유율 4위. 이시가와현 공장에서 대체생산 검토 중	
	Hitachi Displays	중소형 액정 패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바라 공장	세계 점유율 7위. 전력공급이 안정되면 4월부터 통상생산 전망	
	TDK	초소형 유기 EL 디스플레이	휴대전화기
	TDK Micro Device	세계 점유율 1위. 재개 시기 미정	
	미쓰이 금속	고기능 전해도막	스마트폰의 회로기판 등
	아게오시 공장	세계 점유율 90% 이상. 중단이 지연되면 영향 확대 우려	
통신인프라	Epson Toyocom	수정(水晶) 부품	통신기지국 등
	후쿠시마 사업소	세계 점유율 25%로 1위. 다른 거점에서 대체 생산 검토 중	
	일본전파공업	수정(水晶) 부품	GPS용 등
박형TV	요시가와NDK	세계 점유율 2위. 니가타현과 말레이시아 등의 거점에서 중산 검토 중	
	Hitachi Chemical Co., Ltd.	액정용 회로접속필름	대만 액정 패널 대기업 友達光電(AUO, AU OPTRONICS)
	시모다테 사업소	세계 점유율 50~60%. 17일에 조업 재개 발표	
	JX Nippon Mining&Metals Co.	Target(성막(成膜)부재)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이소하라 공장	세계 점유율 약 45%. 중단이 지연되면 액정 TV나 PC 등의 생산에 영향 우려		

표 1. 계속

기업		생산품목	주요 공급처
공장·자회사명		영향과 대책	
기 계	IHI	항공기 엔진 부품	방위성(Ministry of Defense)과 미국 GE,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P&W
	소마 제1, 제2공장	조업재개 전망이 불투명하여 일부 고객에게 납입 지연에 대해 설명	
	Komatsu	엔진과 유압(油圧) 기기	자사의 국내의 건기(建機) 공장
	오야마 공장	4월 이후 중국에서도 유압셔블(油圧 shovel) 생산수준 유지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18일에 소량 생산재개 발표	
	Hitachi Kenki	셔블(shovel)기간 부품	자사의 해외 셔블 공장
	가스미가우라 공장	생산대수가 동사 최대인 중국 공장(안위성)의 생산에 영향 우려	
기 타	고베 제강소	알루미늄판 재료	음료캔이나 하드디스크 기판
	모모카 제조소	재가동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스미토모 경금속 공업과 요시가와 스카이에 대체생산 의뢰	
	신일본 제철	타이어용 선재(線材)	타이어
	가마이시 제철소	무로란 제철소(후카이도 무로란시)와 기미즈 제철소(지바현 기미즈시) 등에서 대체생산 검토 중	
	Nippon Kasei	봉지제(封止材)용 첨가제	태양전지
	오나하마 공장	세계 점유율 90% 이상. 중단이 지연되면 태양전지 생산에 영향 우려	

자료: 日本經濟新聞(2011. 3. 15).

■ 이러한 일본 내 조업차질은 일본 국내를 넘어 부품소재를 공급 받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품 조달난을 초래함.

- 2010년 일본의 부품소재 부문 수출액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22.8%, ASEAN 4개국 13.4%, 한국 8.9%, 대만 7.6%로 나타났는데,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이 부문의 생산 및 수출 차질은 이들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조업시간 단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단기적인 문제는 없으나, 일본 부품 사용률이 20%에 달하는 르노닛산자동차의 경우 주말특근과 평일잔업을 중단했으며 GM도 특근 및 잔업 단축을 실시함.

■ 이하에서는 동아시아의 기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 결과, 이번 일본 대지진이 동아시아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주 분석대상은 한국, 중국, 대만과 ASEAN 4개국(태국,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함.

## 2.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현황

■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일본은 부품소재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동아시아 주요국의 일본 부품소재 수입 의존율은 각각 대만 29.0%, 한국 25.2%, ASEAN 4개국 21.6%, 중국 15.3% 등으로,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부품소재 수입대상국임(표 2 참고).

○ 이에 비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수입비중은 중국(13.1%), 대만(8.1%), 일본(7.2%), ASEAN 4개국(5.4%), EU(4.2%), 미국(3.9%)으로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음.

-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총액은 427억 달러로 한국(229억 달러)이나 대만(213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아 한국과 대만이 일본의 부품소재 부족분을 단시일 내에 대체한다는 것은 물량적으로 불가능함.

○ 더구나 일본산 부품은 저렴한 범용제품이 아니라 대체가 곤란한 고부가가치·고기능 제품이 대부분임.

○ 가령 아사히글라스의 ‘터치스크린 글라스’는 애플 iPad에 소요되는 유일무이한 부품이며, 중견업체 구레하의 ‘폴리머’는 리튬전지에 소요되는 핵심부품으로 대체품이 없는 상황임.

■ 반면 수출시장으로서 일본의 역할은 ASEAN 4개국에서 18%를 차지함(표 3 참고).

- 일본(18%)은 중국(25.9%) 다음으로 ASEAN 4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그 규모도 미국(15.7%)이나 EU(16.6%)보다 큼.

- 이에 따라 만약 일본이 경기침체를 겪으면 ASEAN도 동반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기타 국가들의 대일본 수출비중은 한국(6%), 중국(7.6%) 등 대부분 8% 이하로 그리 높지 않아 일본 경기불황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국간 부품소재산업 교역 현황(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일본	한국	중국	대만	ASEAN4	미국	EU	총계	일본비중	한국비중
수 입	일본	-	13,814	53,276	15,414	21,906	27,895	18,450	192,704	-	7.2%
	한국	38,094	-	37,303	10,049	8,227	16,418	17,917	151,180	25.2%	-
	중국	97,256	83,184	-	92,218	71,909	40,605	63,958	635,991	15.3%	13.1%
	대만	32,222	9,062	18,025	-	3,433	10,386	5,722	111,213	29.0%	8.1%
	ASEAN 4	57,280	14,293	33,819	3,976	-	19,822	19,245	265,064	21.6%	5.4%
	미국	57,181	19,496	73,666	15,537	29,383	-	122,053	502,338	11.4%	3.9%
	EU	44,268	22,289	106,193	11,237	29,235	101,339	-	529,087	8.4%	4.2%
수 출	총계	426,609	229,038	547,431	218,925	282,432	494,328	645,055			
	일본비중	-	6.0%	9.7%	7.0%	7.8%	5.6%	2.9%			
	한국비중	8.9%	-	6.8%	4.6%	2.9%	3.3%	2.8%			

주: 대만과 ASEAN 4 사이의 부품소재 교역 수치는 2009년 교역량 상위 10개 품목 중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더한 것이므로 실제치보다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 MCTNET, 臺灣國際經濟合作協會(1=0.012\$, 1=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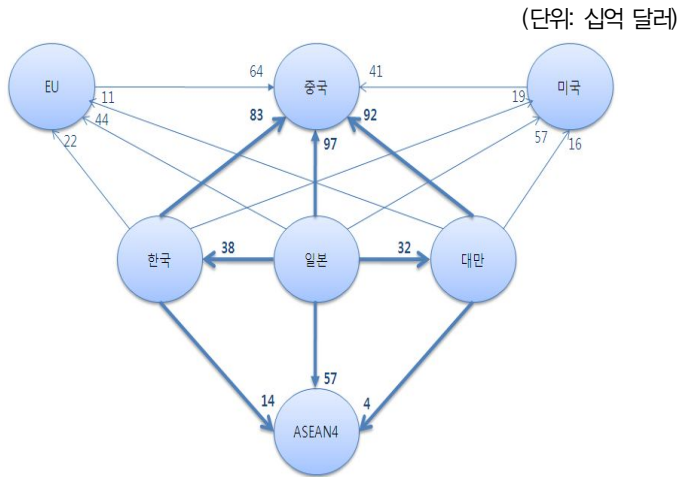
표 3. 주요국간 전체 교역 현황(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일본	한국	중국	대만	ASEAN4	미국	EU	총계	일본비중	한국비중
수 입	일본	-	28,176	120,262	13,571	83,759	60,545	58,482	727,668	-	3.9%
	한국	64,296	-	71,574	13,647	31,174	40,403	37,732	425,212	15.1%	-
	중국	176,304	116,838	-	115,645	120,535	91,878	153,706	1,375,451	12.8%	8.5%
	대만	36,154	14,830	29,642	-	13,986	26,027	19,968	173,541	20.8%	8.5%
	ASEAN 4	82,819	27,310	77,110	15,150	-	37,274	42,210	401,540	20.6%	6.8%
	미국	120,348	49,816	364,944	35,907	73,054	-	322,990	1,912,092	6.3%	2.6%
	EU	88,277	52,757	385,009	32,856	77,481	227,580	-	5,400,797	1.6%	1.0%
수 출	총계	808,864	466,384	1,576,817	193,801	465,439	1,277,504	5,313,200			
	일본비중	-	6.0%	7.6%	7.0%	18.0%	4.7%	1.1%			
	한국비중	7.9%	-	4.5%	7.0%	6.7%	3.2%	0.7%			

주: 대만과 ASEAN 4개국과의 교역은 2009년치임.  
 자료: KITA, IMF DOT(1=0.012\$, 1=1.369\$).

그림 2. 주요국간 부품소재 교역 흐름도



자료: KITA, MCTNET, 臺灣國際經濟合作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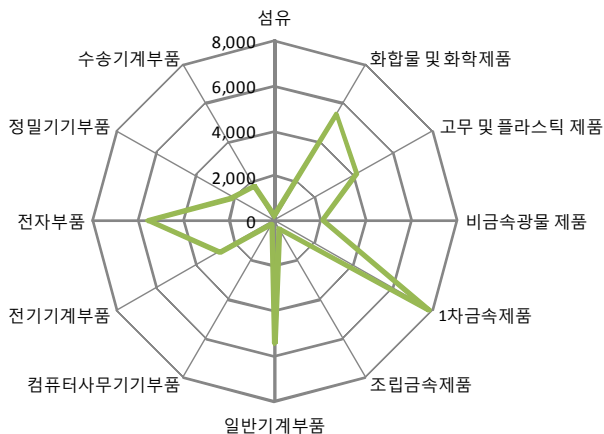
■ 부품소재 품목별로 보면, 분석 대상국 모두 '전자부품' 대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송기계' 나 '1차금속'의 비중은 각국의 산업구조에 따라 달리 나타남(그림 3~6 참고).

- 한국의 50억 달러 이상 대일본 수입품은 '1차금속', '전자부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일반기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전자부품의 비중이 낮은 반면 1차금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그림 3 참고).

○ 한국은 자동차 산업의 생산비중이 높음에도 '수송기계' 관련 부품소재 수입비중은 높지 않은데, 이는 부품 국산화에 상당 부분 성공했기 때문임. 현대·기아차의 일본 조달부품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그림 3. 한국의 일본 부품소재 수입 품목 분포(2010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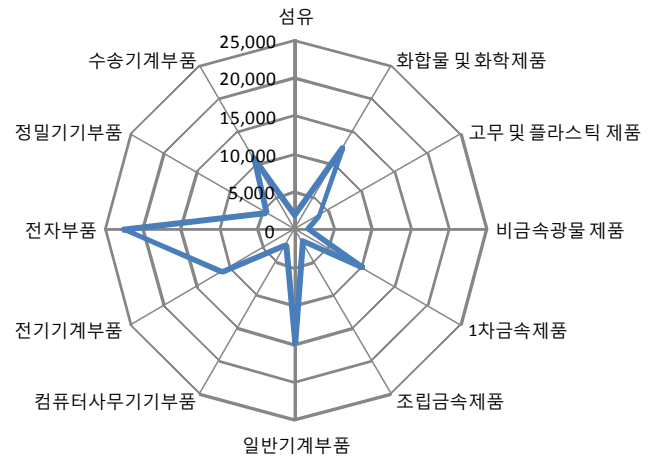


자료: KITA(1=0.012\$).

- 중국은 전자부품, 일반기계부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전자기계, 수송기계, 1차금속 수입. 한국보다 전자부품과 수송기계의 비중이 약간 높으며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산업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그림 4 참고).

그림 4. 중국의 일본 부품소재 수입 품목 분포(2010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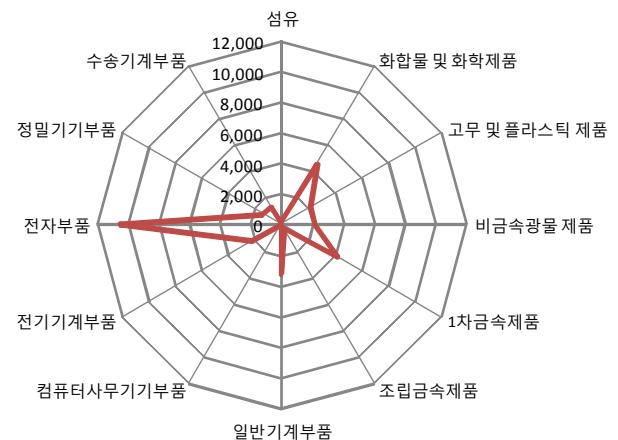
자료: KITA(1=0.012\$).

- 대만은 전자부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1차금속, 일반기계 순이나 전자부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그림 5 참고).

○ 실제로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신에츠(信越), 썬코(SUMCO) 같은 일본업체로부터 대부분의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짐.

그림 5. 대만의 일본 부품소재 수입 품목 분포(2010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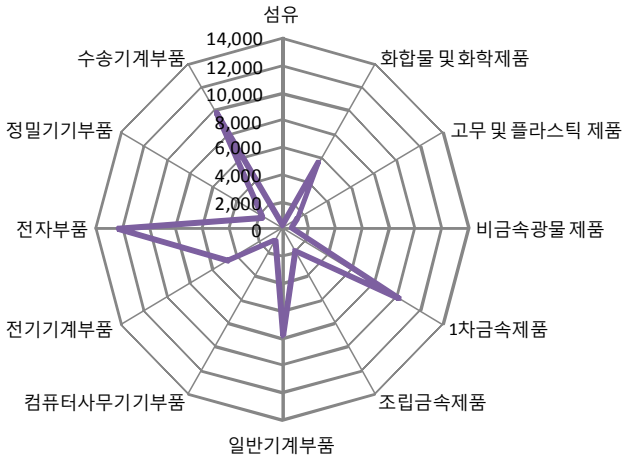


자료: KITA(1=0.012\$).

- ASEAN 4개국은 '전자부품' 과 더불어 '수송기계부품' 과 '1차금속제품'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음(그림 6 참고).

- 이는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임.

그림 6. ASEAN 4개국의 일본 부품소재 수입 품목 분포(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1=0.012\$).

■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부품소재 조달 능력에 차질이 생기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체의 생산 네트워크에 충격을 주게 됨(그림 2 참고).

- 가령 이번 피해지역의 생산량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기계는 중국에 147.8억 달러 규모로 수출되고 있는데, 만약 수출 공백이 발생한다면 단기적으로 (1) 중국의 조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2) 대만과 한국 등 제3국에서 대체 및 (3) 중국의 자급자족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충격의 예상 경로는 미시적, 산업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자세한 예측은 어려움.

### 3. 동아시아 각국의 영향 및 대응

#### 가. 중국

- 중국의 무역은 전형적으로 주변 국가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한 후 자국의 값싼 생산비를 활용하여 임가공 내지 조립을 거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0년 전체 무역수지는 1,831억 달러의 흑자를 보인 반면,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는 88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부품소재 등을 주로 수입하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6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 10대 품목(전체 대일 수입의 20.6%를 차지) 중 8개 품목이 부품소재에 해당함(표 4 참고).

표 4. 중국의 대(對)일본 상위 10대 수입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코드	상품명	금액	증가율	비중
1	854231	모노리식 집적회로	64.7	13.5	3.7
2	870323	배기량 1.5~3.0 차량	46.0	107.4	2.6
3	901380	액정 디바이스	43.3	23.1	2.5
4	870840	차량 기어박스 및 부품	42.2	34.2	2.4
5	854239	기타 집적회로	37.4	27.4	2.1
6	854232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30.9	7.7	1.8
7	844399	인쇄기 부분품	26.5	38.8	1.5
8	842952	360도 회전 기계	24.7	104.5	1.4
9	847989	기타기기	24.6	111.2	1.4
10	870324	배기량 3.0 이상 차량	21.3	49.8	1.2
1~10위 품목 합계			361.6	-	20.6

주: 2010년 HS 6단위 기준 상위 10대 대일 수입품목, 비중은 전체 대일 수입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음영은 부품소재. 자료: KITA(중국무역통계).

■ 2010년 1백억 달러가 넘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했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일 합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부품소재 조달난이 현실화됨.

- 이치-도요타, 광치-혼다, 동평-닛산 등 일본계 자동차 합자 기업의 재중국 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
- 대다수의 중·일 합자기업은 전기소자, 자동변속기, CVT 변속기 등의 재고 분량이 2~3주분에 불과해 단기간 내 생산차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완성차 생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동평-닛산의 경우, 주요 부품인 VQ 엔진, 변속기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치-도요타, 광치-혼다도 충격흡수기, 엔진덮개막대, VTEC 유압밸브 등을 수입하고 있음.
- 혼다는 지진 발생 후 11일이 지난 22일, 그 다음날부터 27일까지 조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그 후 4월 3일까지 조업 중단을 계속한다고 반복하면서 향후 일정도 부품 조달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힘.

- 3월 29일 현재 동평-닛산의 하루 생산량은 지진 전의 25%인 82대 수준으로 떨어짐.

■ 전자산업은 업종별로 지진 피해의 영향이 엇갈림.

- 반도체의 경우 지진 피해지역에 신에츠 등 대형 실리콘 웨이퍼 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일본에서 해당 부품을 수입하는 도시바, 후지쯔 등 일본계 기업들의 피해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됨(표 5 참고).

-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소니, 마츠시타, 샤프 등의 업체들이 중국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많은 부품을 현지화한 관계로 일본에서 발생할 부품 조달난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TV의 경우 일본의 부품 공급지가 피해지역과 멀거나(샤프) 부품조달을 현지화했거나(마츠시타) 주요 부품을 삼성 등 제3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소니) 이번 지진피해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음.
- LCD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재고부족 현상은 올해 2/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표 5. 일본 지진피해가 중국의 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품목	일본 피해 정도	중국의 피해 산업	중국의 의존도	영향 정도
반도체	실리콘 소재	심각	반도체 칩 제조업	★★★★★	높음
	소비품 IC 회로	중간	도시바, 소니 등 재중국 일본기업	★	중간
	시물레이션 IC	중간	전자기기	★★	중간
	메모리	-	컴퓨터 및 소비재 전자 기기	★	매우 낮음
전자부품	첨단컨텐츠	-	전자기기	★★★★★	낮음
	첨단저항기	중간	전자기기	★★★	중간
	첨단가변유도기	중간	전자기기	★★	중간
LCD	액정패널	-	TV, 노트북, 모니터 등	★	매우 낮음
	업스트림 소재	-	액정패널	★★★	낮음
태양광	태양전지	-	중국시장	★	매우 낮음
	규소결정물	경미함	중·일 합자 태양에너지 전지기업	★	매우 낮음
LED	Chip/Extension	-	LED 최종 조립	★★	낮음
	최종조립	경미	LED 응용	★★★★★	낮음
자동차 전자부품	동력제어시스템, 새시제어 및 안전시스템, 차체전자부품, 차적제 전자부품	중간	중·일 합자 자동차 기업	★★★★★	비교적 높음
노트북	완성조립	-	중국 소비자	★	매우 낮음
	관련 부품	약간	중·일 합자 노트북기업	★★	중간
디지털카메라	완성조립	경미	중국소비자	★	매우 낮음
	관련 부품/렌즈	경미	중·일 합자 디지털 카메라기업	★★★	낮음

자료: 和讯科技网站.

- 각종 자동차용 전자부품의 경우 피해지역에 많은 업체가 모여 있어 중국의 일본계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예상됨. 도요타 측은 피해지역에 3개의 관련 공장이 있으나 중국의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단기적으로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의 일본 내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상무부 경제협력연구원의 리광후이(李光輝) 소장은 일본 지진 피해가 제한적으로 중·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회복하는 데 약 반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옌성(张燕生)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일본 지진과 1/4분기의 각종 외부충격이 겹쳐 중국 GDP 성장률이 0.5% 하락할 것이며, 일본의 생산회복이 더더 1개월을 넘기면 중국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함.
- 반면, 재해복구에 따른 기초인프라 시설정비를 위한 철강, 건축자재 등에 대한 수요증대로 대·일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대만

■ 전자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전체 부품소재 수입의 1/3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대만 최대의 수입대상국이며, 2010년 대만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약 339억 달러에 달함.

- 대만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소재의 1/3가량은 저항기트랜지스터, 폴리머 같은 전자 핵심 부품임.
- 또한 2010년 일본 부품소재 수출대상국 중 대만이 전체의 7.6%로 4위를 차지했음.
- 특히 대만의 핵심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부품소재 조달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만 정보통신산업의 2009년 GDP는 전체 GDP의 12.6%를 차지했으며, 고정자본은 전체의 22.4%를 차지함.
- 대만은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후 수출하는 형태가 주를 이룸.
- 2005~09년간 대만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7%, 정보통신산업의 평균 GDP 증가는 13.9%로, 동 산업이 국가 전체 GDP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며, 대만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기여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제조업 생산지수 성장률은 28.6%이며, 이 중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이 40.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2011년 1월에도 26.0%의 성장률을 기록해 동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상황임.
- 이번 지진의 영향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남. 일본 부품소재 수입액이 많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통신, 태양광발전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그렇지 않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기계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이방성 도전 필름(ACF)의 공급차질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전망이다.
-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해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가 다른 공급처를 찾는 데도 비용상승은 불가피함.
- 기존의 대만 국내 생산업체는 주로 중국시장으로 수출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만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도 있음.
- 반도체 산업의 경우, 12인치 웨이퍼와 설비 분야에 타격이 예상된다.
- 세계 최대 실리콘웨이퍼 생산업체인 신에츠화학의 12인치 웨이퍼 생산공장은 세계 12인치 웨이퍼 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피해로 대만 OEM 업체의 웨이퍼 공급에 차질이 생김.
- 또한 설비의 경우 대체가능한 공급처가 없기 때문에 일본 업체의 생산라인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
- 이 때문에 대만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TSMC는 정전 및 시설 파괴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수급차질보다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반도체 설비확충이 불확실해진 것을 더 염려하고 있음.
- 통신산업의 경우, 업스트림에 위치한 원자재 및 전자부품 공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전력증폭기(power amplifier), SAW 필터, 온도보상형 수정발진기(TCXO), 연성회로기판(FCCL) 등 휴대폰 핵심부품의 단기적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나, 비(非)일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원자재 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정보기기의 회로기판 칩 고착제인 BT 수지의 경우, 세계 최대 공급업체인 미쓰비시 가스 케미컬(MGC)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최대 수입자였던 대만업체들의 타격이 클 가능성이 있음.
- 대만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인 HTC는 5월까지 재고물량이 확보되었다고 밝혔으나, 수급난이 그보다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해 대만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
- 태양광 산업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태양전지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혜업종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산업사슬에서 실리콘, 웨이퍼, 시스템 분야에는 영향이 없고, 모듈 분야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비용상승 압력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음.
- 태양전지 분야는 일본 모듈업체의 내수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있음.
- 전력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일본업체의 조업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2011년도 대만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의 류이루(劉意如) 위원장은 일본 지진이 2011년 대만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5~1% 수준일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골드만 삭스도 일본 지진이 대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당초 2011년 대만 GDP 성장률 예상치 4.7%를 그대로 유지함.<sup>2)</sup>

■ 현재까지 대만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공급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핵심부품 소재 등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임.

- 단기적으로는 △ 필요할 경우 중국의 관련 제품 수입을 개방하고 △ 원료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발생할 경우 일부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며 △ 필요할 경우 국내업체에 물량이 부족한 원자재 및 핵심부품을 대만 국내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경제부 공업국 보고서』(2011. 3. 23)).
- 장기적으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원자재, 부품, 설비에 대해 △ 산·학연구단을 조직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 관련 외국기업이 대만에서 독자 또는 합자로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다. ASEAN 4개국**

- ASEAN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 제조업의 대규모 FDI를 통해 일본의 전통적인 해외생산기지로 발전하면서 일본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함.
- ASEAN 4개국은 일본을 선두로 일본-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ASEAN 4개국으로 이어지는 ‘안항형 발전모델(Flying Geese Model)’의 마지막 대열에 속하는 지역임.<sup>3)</sup>

-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만 등으로 이전되었던 일본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다시 ASEAN 4로 이전되면서 ASEAN 4는 일본 제조업의 대표적인 해외생산기지로 부상함.

-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들이 산업고도화에 성공하면서 일본과 경쟁적인 수준까지 발전한 반면, ASEAN 4는 일본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에 머물러 있어 대일 의존도가 높음.

■ ASEAN 4의 주요 제조업은 일본 수출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를 근간으로 발전하면서 대일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교역구조가 형성됨.

- ASEAN 4 국가들의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일본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표 6 참고).

표 6. ASEAN 4개국의 주요 제조업의 대일 교역비중(2010년)

국가	업종	수출		수입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인도네시아	기계	2	12.1	2	18.6
	전기전자	3	11.2	3	11.4
	자동차	3	14.6	1	40.1
말레이시아	기계	6	5.1	3	11.4
	전기전자	5	7.5	3	13.4
	자동차	7	5.6	1	41.7
필리핀	기계	2	18.1	1	30.0
	전기전자	3	12.3	2	11.7
	자동차	3	14.5	2	26.1
태국	기계	3	8.8	1	25.9
	전기전자	1	14.5	1	23.3
	자동차	6	3.8	1	60.5

주: HS 2단위 기준에서 기계(84), 전기전자(85), 자동차(87)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비중은 각 업종별 수출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 특히 태국의 경우 3개 업종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대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함.
- 이는 태국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임.
- 반면 말레이시아는 다른 ASEAN 4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일 수출 의존도가 낮은 편이나 수입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남.

■ 태국의 경우 대일 교역 의존도가 ASEAN에서 가장 높으며, 일본이 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이번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2)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2011. 3. 18), “Commodities and Strategy Research,” *Asia Economics Flash*.

3) 선발 ASEAN 국가로 분류되는 ASEAN 6 중에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일 수입-현지 조립-생산-소비-수출로 이어지는 생산사슬과 연관성이 낮은 관계로 본고에서는 ASEAN 6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선정해 분석함.

피해가 ASEAN 4 국가들 중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중국에 이어 태국의 제2교역국(수출 3위, 수입 1위)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태국 제조업 전반에 일본 다국적기업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함.
- 또한 2005~10년 누적액 기준 일본의 대태국 부문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금속가공(52%), 전기전자(23%) 등 주요 제조업에 일본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sup>4)</sup>
- 태국 제조업은 대일 부품·소재 수입-조립·생산-소비·수출로 이어지는 생산사슬이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며 대일 수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에 달함.
- 이번 일본 지진사태로 일본산 부품 수입 지연에 따른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체에서는 재고물량 유지를 위해 감산을 실시함.

■ 필리핀의 경우 ASEAN 4 중에서 제조업 발전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이나 일본 전기전자 및 자동차 기업이 제조업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어 일본 지진사태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으로(수출 2위, 수입 1위) 필리핀의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투자부문에서도 2010년 FDI 총액의 약 29%를 일본이 차지해 필리핀의 최대 투자국임.
- 필리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해외노동자 송금이 GDP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번 지진사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송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본의 대필리핀 공적원조(ODA)가 필리핀 전체 ODA 지원총액 1/3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재건지원 조달의 영향으로 원조자금 규모가 감소하거나 관련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

■ 말레이시아는 ASEAN 4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대일 교역 의존도가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발전한 전기전자 부문의 부품·소재 수입지연에 따른 생산차질이 예상됨.

-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제4수출대상국이자 제2수입대상국이며 최대 투자국임.
- 말레이시아는 ASEAN 4개국 중 전기전자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기전자 부품소재가 총액의 약 44%로 높은 편이며,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부품·소재 수입지연으로 생산차질이 우려됨.
- ASEAN에서 유일하게 자국 완성차 브랜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말레이시아는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주요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로 일본 부품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차 부문 최대수입처인 태국에서의 부품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또한 주요 제조업 대부분의 대일 교역 의존도가 높고 ODA를 활용한 주요 인프라 개발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 단기적인 피해는 물론 중장기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국(수출 1위, 수입 3위)으로 인도네시아의 대외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인도네시아의 대일 교역 최대 수출품목은 연료류(HS-27)로 전체 교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수입은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순으로 대일 교역이 원자재를 수출하고 부품 및 자본재를 수입하는 구조임.
- 대일 수입 부품·소재 비중도 66%로 높은 편이며, 부문별로는 기계·금속 및 자동차 부문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아 부품공급 지연에 따른 생산차질이 우려됨.
- 또한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원조공여국으로 다수의 양자간·다자간 사업을 주도해왔으나 이번 지진사태로 인한 재건지원 조달로 일본과의 양자간 원조사업은 물론 인도네시아경제개발회랑(IEDCs) 건설사업 같은 다자간 원조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
- 최근 중동 정정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맞물려 일본의 원전을 대체할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 수출품목인 원유의 대일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된 바 있음.

■ 일본 지진사태가 ASEAN 4에 끼친 영향은 부품공급 지연으

4) BOI(2011. 3), *Thailand Investment Review*, Vol. 21, No. 3.

로 인한 제조업 생산 차질, 투자여력 감소 및 투자회수 가능성, ODA 지원감소 우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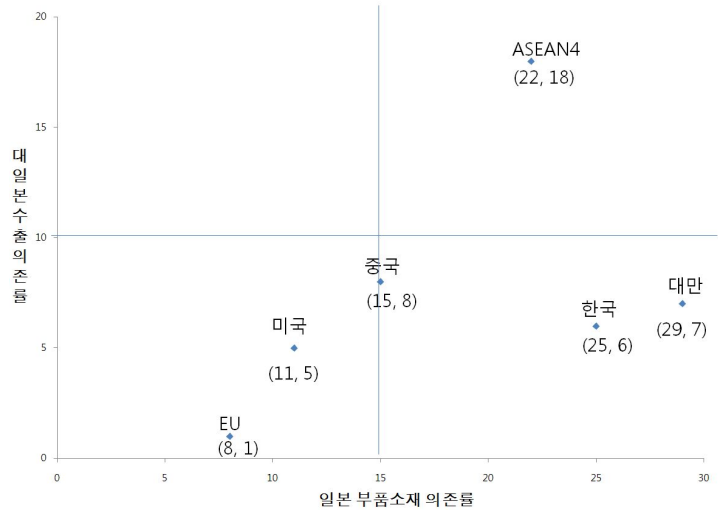
- ASEAN 4 대다수는 대일교역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태국 73%, 말레이시아 68%, 인도네시아 67%, 필리핀 64%) 이번 지진사태가 대일 수입-조립·생산-소비·수출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일본이 수출시장으로서 의미가 크긴 하지만 일본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수입-조립·생산-소비·수출 형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ASEAN 4개국의 제조업에 수출은 단기적인 영향, 수입은 중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과거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투자회수가 선진권보다는 신흥지역의 자금회수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ASEAN 4에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지원을 위해 일부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음.
  - 하지만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지역적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ASEAN 국가들이 일본의 FDI 유치에 적극적인임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ASEAN 투자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나 ASEAN의 주요 ODA 공여국인 일본이 국내 재건을 위한 자원조달을 위해 ODA 공여를 지연 혹은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지진사태가 ASEAN 4에 끼치는 영향은 일본과 ASEAN 4의 독특한 생산사슬로 인해 개별 분야에 대한 영향이 즉시 발생하기보다는 교역, 생산, 투자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4. 결론 및 시사점

### 가. 동아시아 각국의 수요와 공급 부문의 리스크 평가

- 국가별로 일본의 중요성을 부품소재 조달과 수출시장 차원에서 [그림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네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가 가능함.

그림 7. 국가별 대일본 의존도



자료: KITA, IMF DOT, MCTNET, 臺灣國際經濟合作協會.

- 고(高)의존국: (ASEAN4) 높은 부품소재 의존율(22%)과 높은 수출의존율(18%)
  - 일본 경기침체로 인한 대일본 수출감소<sup>5)</sup>와 부품소재 부족으로 인한 조업차질이 예상됨.
- 중고(中高)의존국: (한국과 대만) 높은 부품소재 의존율(25%, 29%)과 낮은 수출의존율(6%, 7%)
  - 부품소재 부족으로 인한 조업차질이 예상되며, 일본산 부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이를 기회로 자국의 부품소재 수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음.
- 중(中)의존국: (중국) 비교적 높은 부품소재 의존율(15%)과 낮은 수출의존율(8%)
  - 부품소재 부족으로 인한 조업차질이 예상되며, 만약 부품 조달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일본산 부품을 한국산이나 대만산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국제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는 일본의 위기로 한국과 대만이 어부지리를 얻지 못하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일본 부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저(低)의존국: (미국과 EU) 낮은 부품소재 의존율(11%, 8%)과 낮은 수출의존율(5%, 1%)

5) 한편으로 지진 복구사업으로 목재 등 건축자재 수출증가도 가능함.

- 제조업과 수출에 일부 품목별로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
- 이에 따라 일본 대지진이 각국의 산업 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7. 일본 대지진이 각국에 미칠 파급효과의 강도

의존도	국가	파급효과의 강도	
		부품소재 조달난	수출시장 축소
高	ASEAN 4	★★★	★★★
中高	한국과 대만	★★★	★
中	중국	★★	★
低	미국과 EU	★	★

■ 이를 종합하면 이번 지진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주는 충격을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으로 나눠 정리할 수 있음.

- 수요부문의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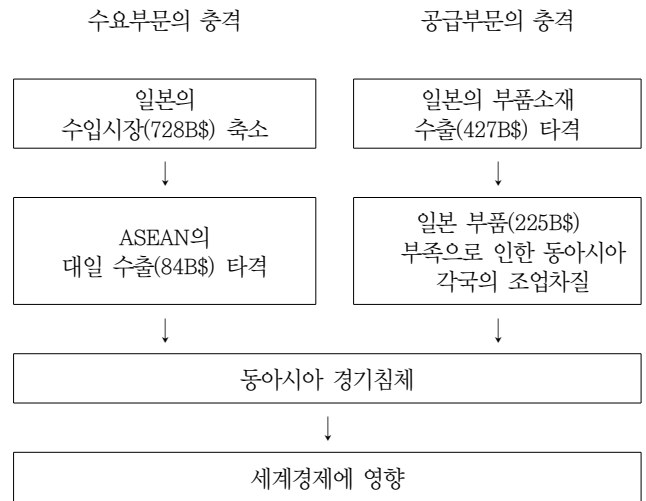
-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해 7,276억 달러 규모의 일본 수입시장 타격 → ASEAN의 838억 달러 규모 대일 수출감소 → ASEAN발 경기후퇴 → ASEAN 국가들의 통화 평가절하로 인해 실물에서 금융부문으로 위기 전이
- 그러나 ASEAN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공급부문의 충격

- 총 4,266억 달러 규모 일본 부품소재 공급차질 장기화 → 2,249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부품소재 수입에 차질 → 동아시아 제조업 타격 →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인상 → 전 세계 공산품 가격상승 →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 특히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세계 최대에 올라선 만큼 중국의 생산차질은 그 충격이 동아시아에만 머물지 않음.

■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ASEAN 국가의 통화 평가절하 같은 금융 방면의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산업적으로 공급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를 갖춰야 함.

그림 8. 일본 지진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의 과제

■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업계의 적절한 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약점은 대일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다는 것임.
  - '수송기계' 등 중간단계 부품은 거의 자급단계에 들어섰으나 1차금속 같은 기초 부품은 여전히 일본의 비중이 매우 높음.
  - 반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대만에 비해) 산업구조가 다원화돼 있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것과 (중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앞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일본의 부품소재를 더 빨리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보다 대일 부품 의존도가 높고 전자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가진 대만의 경우 이번 대지진 후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매수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주로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부품 조달선을 다원화한 반면 대만의 파워칩, 난야, TSMC 등은 실리콘 웨이퍼 대부분을 일본의 신에츠화학과 썬코에서 조달받고 있음.
- 이러한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요망됨.

■ 수입관세 인하와 국내조달 우선 정책 등 제조기업의 원가압력 완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 조치가 요망됨.

- 부품소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공급이 부족한 일본산 부품을 좀더 싼 값에 조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주요 부품의 국내조달 우선 정책을 실시하여 산업보호를 꾀할 수 있음.
- 이상의 두 정책은 지진 이후 대만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공백이 초래할 한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함.

- 낸드플래시나 D램 등 당장 대체 가능한 부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가될 공산이 큼.
- 지진 이후 이미 많은 한국 부품업체들이 해외 바이어들의 발주처 다변화에 따라 연장조업을 실시하고 있음(표 9 참고).

IR' 과 같은 이벤트를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함.

- 동일한 업종 내에서 대일본 부품 의존율이 높은 기업과 자급률이 높은 기업 사이의 업적 차이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큼.
- 일본에 25% 넘게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수입선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는 일본과의 FTA 등 장기적인 산업전략 측면에서 협상권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됨.
-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부품 현지조달을 강화하는 것도 생산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 중 하나임. KIEP

표 8. 조업차질을 겪고 있는 일부 일본업체와 관련 한국업체

부품 소재	일본업체(세계시장 점유율)	국내 업체
반도체 웨이퍼	신에츠·섬코(60%)	LG실트론
본딩 와이어	TKK(23%)·NMC	MK전자
세리아 슬러리	히타치화학(90%)	케이씨텍
BT 레진	미쯔비시가스케미컬(50%)	두산전자·LG화학
블랭크 마스크	CST·UI coat·호야(88%)	에스앤에스텍
MLCC	무라타(33%), TDK(16%)	삼성전기·삼화콘덴서

자료: 『매일경제신문』(2011. 3. 30).

- 일본산 부품이 제품 자체가 특화되어 대체가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의 압력이 커질 수 있음.
- 제품 개발 단계에서 그에 특화된 부품 조달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주요 업체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이 경우 제품 표준과 부품 수주를 놓고 대만 및 중국과의 경쟁이 예견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야 함.
- 생산차질이 좀더 가시화될 경우, 한국 부품소재 글로벌